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1998. 9. 15 창간

춘천 성시

vol.201

2015 8

그릿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특집 한국교회와 춘천의 큰별이 지다
선교 네팔
다음세대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기관탐방 은빛유치원
영화이야기 트레비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물맷돌을 요청합니다

중국고사에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바퀴를 막아선다는 뜻입니다.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 장공(莊公)이 사냥터로 가던 도중에 웬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듯이 덤벼드는 것을 보고 수레를 모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무슨 벌레인가?"
"사마귀라는 벌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 모르는 놈입니다."
장공이 말했습니다. "저 벌레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천하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수레를 돌려 피해 가도록 하라."고 했다 합니다.

그동안 척박한 강원도 춘천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간 춘천 성시화운동(1972년 여름)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심정으로 일해 왔습니다.
현대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의 도시로 변질되어가는 큰 흐름 속에서 거룩한 도시, 주님의 도시, 복음의 도시, 평화의 도시를 외쳤습니다. 이는 사울 왕 시대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또한 내년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1996년 창립). 이를 더욱 뜻있게 준비하기 위해 [춘천성시화운동 발전기금]을 모금하기로 성시본부 임직원과 이사진이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발전기금]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충하고, 전문 인력 처우개선, 장기적인 성시화 운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싸울 다윗의 물매돌을 요청하는 심정으로 이 모금운동을 전개하오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든 교회와 목회자, 평신도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춘천의 큰 별이 지다.

고 김주환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목사로 나서, 목사로 살다, 목사로 떠났다.
'목사는 설교자' 라는 원칙을 가지고, 순복음춘천교회를 개척 후 43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강단을 비우지 않았다. 생명을 다해 설교하고, 한 영혼을 목양하는데 일생을 드렸다.
고 김 목사는 평생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며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강조했고 그 말처럼 사셨다.

Editor's Letter

지난 200호 성시매거진에 보내준 많은 분들의 박수와 격려뿐 아니라 애정 어린 지적과 따끔한 조언까지도 모두 다 감사하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 척박한 땅을 개척하며 성시화의 물길을 트는 일에 애쓰고 힘썼던 노장들의 얼굴의 주름을 보면서 또한 오랜 세월을 달려 이제는 어눌해지기까지 한 그분들의 떨리는 음성을 들으며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300호를 향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자 다짐하게 된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편집 모임으로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다급하게 다가오는 편집 마감에 정신없이 내용들을 담다보면 늘 판에 박힌 뻔한 글과 면을 채우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뜨끔한 말을 서슴치 않는다. '읽은 거리가 없다'고... 맞는 말이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매거진은 이미 소식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뒷북치는 소리가 되기 쉽고, 그렇다고 무슨 논문을 실을 것도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시매거진의 '자리매김'이 아직 덜 된 상태이다.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누구에게도 외면받지 않으려다가 누구에게도 읽혀지지 않는 성시매거진이 될까 걱정이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성시매거진의 편집방향에 대해 숙고하기로 했다. 편집위원들이 힘들더라도 적어도 두 달 앞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편집회의에서 먼저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한다. 어떤 내용들은 좀 시간을 두고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급하게 글을 내려다 서툰 글이 되었다. 또한 이름에 걸맞게 성시화에 대한 소식뿐 아니라 성시화 운동을 선도하는 내용들을 심도있게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직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성시화운동을 일으킬 방안들을 찾아내어 나눔으로 성시화 운동이 구호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재가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는 일에 진정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장 최영조

성시 창간 1998. 9. 15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지용찬,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성낙환, 안세현,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디자인
로딘어스 010.2536.8731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T 033.256.1260~1 F 033.257.1260 E holycc1972@hanmail.net

※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 성시매거진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Contents

2015.8
vol.201









006 **캘린더**
008 **특집1** 한국교회와 춘천의 큰 별이 지다
010 **특집2** DMZ 815 게더링
014 **성시** 직장선교회
016 **선교** 네팔
020 **다음세대1** 일본후쿠오카
022 **다음세대2** 캄보디아
024 **통일** 쥬빌리
029 **예수안에서 본 예술** 인간의 본성
030 **사설** 시민으로서 기독교의 역할
032 **기관탐방** 은빛유치원
034 **인터뷰** 나이영(강원CBS 부본부장)
040 **설교** 사하시고 고치는 하나님
042 **건강이야기** 자연치료의 열쇠, 장내 미생물
044 **시**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045 **칼럼** 투명한 냇물이 흐르던 고향에 대한 추억
046 **예수의 미소** 비다같은 주의 사랑
048 **예향/만평**
049 **음악산책**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
050 **영화이야기** 트레비
054 **7월 이야기**
060 **후원자 명단**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8
2015

◆ 이달의 기도제목

· 민족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도 회사의 사장이 예수님이고 자신은 관리인이라 고백하는 민족, 모든 직업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가르쳐지고 국회나 각 의회가 모일 때 주의 뜻을 먼저 물어지게 하소서.

·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되게 하소서.

SUNDAY	MONDAY	TUESDAY
30	**31** **[통일광장기도회]** 석사교 하천무대 저녁 8시	
2	**3** [JDM] ~7일 여름수양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JDM 훈련센터 [에스컴] ~5일 에스컴 썸머캠프 충신수양관	**4**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4시 주향교회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저녁 7시, 동부교회 [GBT] ~6일 지선학운영자 세미나 전주자부
9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광장	**10**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4차 저녁 7시, 주향교회 [예수전도단] ~13일 Mission Conference 'The Lamp of God' 충부대학교	**11** **[춘천기관단체장모임]** 오전 7시, 공지천
16 **[교역자연합회]** 제 70주년 광복절기념 연합예배 오후 2시 30분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 유동선 목사	**17** [IVF] ~ 22일 여름수련회 (임우영목사) 청소년 여행의 집	**18**
23 **[강원기독교총연합회]**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오후 4시, 춘천호반체육관 **[기드온 순방예배]** 오전 11시, 소양제일교회	**24** [JDM] ~26일 춘천 2지구 개강수련회 **[어린이전도협회]** ~9.14 TCE교사대학 1단계 오전 10시, 저녁 7시 [GBT] 비전기도회 예담교회 저녁 7시	**25** **[직장선교연합회]** 낮 12시, 동부교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월식새벽기도회
5 [성시본부] 편집회의 [예수전도단] ~7일 자녀양육세미나 저녁 7시, 오전 10시 [ESP] ~8일 전국 ESF 학사수양회	**6**	**7** [성시본부] 조찬이사회 오전 7시, 남산감리교회 [기드온협회] 조찬기도회 오전 7시, 미가식당	**8** [가독교연합회] 탈북자 교육
12 [IVF] ~ 15일 제3차 지방사역협의회 강원 IVF회관 [ESF] ~ 14일 여름여행, 광주, 팽목항, 목포	**13** [IVF] ~ 15일 나음누리수련회 대전헬몬수양관	**14** 8.15 DMZ 게더링 오후 2시 ~ 10시 춘천호반체육관	**15** 70주년 광복절 8.15 DMZ 게더링 오후 8시~ 12개 통일전망대
19	**20** [교역자연합회] 원로 및 은퇴교역자 부부 초청 위로회 낮 12시	**21**	**22**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림대 일송아트홀, 국제회의실
26	**27**	**28** [예스컴] 예스컴 개강예배 저녁 6시	**29**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한국교회와 춘천의 큰 별이 지다

불꽃처럼 살다 간 하나님의 사람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원로목사



아! 하나님의 사람, 김주환 순복음춘천교회 원로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겼다. 지난 16일 새벽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으로 소천했다. 향년 73세.

김 목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단과 한국교회에 큰 별이졌다' 며 조문의 줄을 이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유가족이 조용한 장례를 원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각계 각층의 지도자와 성도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증경총회장 박성배 목사는 조사에서 "기하성 교단의 목회자 중에 목사이신 큰 별이 떨어졌다"며 "영적인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평생 목회만 하셨던 목사님 앞에 정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담임목사는 "김주환 원로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와 동역자,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한 목회자였다"고 회고했다. 또 고(故) 김 목사의 목회를 평생 도왔던 조남진 원로장로는 조사에서 "한 10년 만이라도 더 살아계신다면 10년 후에 발전한 교회 모습도 보시고, 모범적인 원로 목사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을텐데 하늘나라에서 필요하셔서 빨리 불러 가셨다"며 남은 가족과 사역은 교회가 잘 보살피며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故) 김주환 목사는 불꽃처럼 살다간 목사다. 목사로 소명을 받은 그날부터 오직 한 길, 고집스럽게 목사의 길을 걸었다. '목사는 설교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43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강단을 비우지 않았다. 생명을 다해 설교하고, 한 영혼을 목양하는데 일생을 드렸다. 1943년 3월 18일 전남 고흥에서 출생, 28세의 젊은 나이에 강원도 정선군 예미교회를 개척했다. 척박한 땅에 열정적으로 목회하여 1년 만에 100명으로 부흥하자 성전을 건축했다. 1972년에는 춘천 효자동 97번지 2층 18평 셋집에 8명의 성도와 함께 오늘날 순복음춘천교회의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에 대한 몰이해로 연합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 끈기로 이겨내고 강원지역에 순복음교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30년간 목회한 효자동이 비좁자 새 비전을 향해 만천리로 옮기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 드디어 대지 7천평에 위에 새성전, 교육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혜민사랑의집'을 갖춘 명실공히 춘천시를 대표하는 교회로 우뚝 섰다.

전국 최초로 춘천홀리클럽을 조직해 춘천시 성시화운동본부를 발족, 춘천성시화운동 이사장을 맡아 활발하게 성시화운동을 일으켰다. 또 춘천시내 교회 중 최초로 혈액원차량을 교회로 초청, 생명을 나누는 헌혈운동에 참여했다. 2007년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선출되었을 때에는 북강원도 청소년 결핵퇴치를 위해 1만명 분 결핵약 3억 원을 모금하여 25톤 트럭으로 약을 보냈다. 국경을 넘는 사랑의 소식에 강원도와 강원일보사는 2009년 12월 '제5회 DMZ 평화상'을 수여했다.

목회 은퇴는 더 아름다웠다. 2013년 교단법으로 얼마든지 더 목회할 수 있었으나 다음세대를 위해 결단했다. 후임자도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미국의 사위에게 물려 줄 수도 있었지만 에하성의 이수형 목사로 정했다.

고(故) 김 목사는 평생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며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그 말처럼 사셨다. 주일예배는 개척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목회자들을 찾아가 설교하며 격려했다. 자신의 간증이 담긴 전도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손수 제작해 전도하는 등 은퇴 후에도 작고 소외된 교회와 이웃들을 돌보는 목회를 쉬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목사로 나서, 목사로 살다, 목사로 떠났다.

고(故) 김 목사는 순복음신학교, 순총학원 목회대학원 졸업,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춘천교역자연합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강원기독교연합회장, 한민족복지재단 강원지회 이사장,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장, 북강원결핵어린이돕기운동연합회장, 교역자연금공제이사, 춘천 CBS방송국 운영이사, 강원지방 경찰청 경목, 순복음강원신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김동례 사모와 큰 딸과 사위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둘째 딸은 CBS 아나운서로, 큰 아들은 연대 로스쿨에서 근무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연대 의대를 나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총회신문


DMZ
815
Gathering

Special 2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8.15에 춘천에서는 DMZ 815 Gathering이 열립니다. 14일(금)오후2시부터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전체 모임을 갖고, 15일(토) 오전 8시부터 12개 전망대에서 통일을 위한 노래와 기도가 드려진다는데, DMZ 815 Gathering은 어떤 모임인지 알기 위해 김장곤목사 (광주기도의 집, DMZ 815 Gathering 섬김이)를 인터뷰했습니다.

DMZ 815 Gathering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DMZ 815 Gathering의 DMZ는 비무장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815은 8월 15일을 의미합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Gathering은 집회, 성회,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단 70년에 모든 지역과 교회가 분단의 철조망이 있는 DMZ에서 성회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회는 2006년 북한사역을 하고 있는 한 형제가 받은 비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가 받은 비전은 'DMZ에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휴전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동안 양화진 기도의집에서 성실하게 3-4년을 동(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강화)까지 성실하게 횡단하면서 중보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양화진 기도의집이 이스라엘 선교사로 옮겨가게 됨에 따라 DMZ중보연합팀에게 바통을 넘어 왔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DMZ 근처에서 캠프와 동서횡단을 해오던 중에 2015년에는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단어가 DMZ 815 Gathering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DMZ 815 Gathering은 DMZ에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기 위한 성회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가요?

실제적으로 DMZ 155마일(248Km)에 일렬로 서서 기도하는 것은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적으로 들어가서 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선다고 해도 약 30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전략은 DMZ 에 관광차원에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전망대가 12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한 날, 한 시에 12 전망대에 동시에 서서 주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린다면 전 지역을 손에 손을 잡지는 못하지만 상징적으로 동에서부터 서까지 서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5년 8월 15일 12개의 전망대에 동시에 올라서서 동일한 노래와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이것을 한 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단 70년에, 12 전망대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통일을 위한 노래와 기도, 이것은 역사상 결코 다시 오지 않을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남과 북의 화해, 하나됨을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전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

배하고자 합니다. 14일(금)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2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예배와 기도로 각 지역에서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화해와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당일인 15일(토) 아침에 출정식을 하고 12개 팀으로 나누어서 12전망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8월 14일 1시에 등록하고, 2시부터 10시30분까지 예배와 기도, 그리고 8.15일 8시 출정식을 갖고 12전망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춘천에서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춘천은 화해와 평화, 통일의 도시입니다. 또한 유일한 분단도의 수부도시이기도 합니다. 성시화운동본부, 쥬빌리구국기도회, 통일광장기도회, 각 교회 등 모든 단체와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이 가장 잘 된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DMZ 815 Gathering은 화해와 연합, 통일을 위한 모임이기에 춘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6.25 전쟁 당시 춘천에서 3일간 남침하는 북한군을 막아주었기에 대한민국이 전력을 정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의 전초기지 일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춘천에서 12전망대에 3시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 이번 성회를 개최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교회나 단체 및 개인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DMZ 815 Gathering은 모든 세대가 참여합니다. 젖먹이 아이에서부터 70~80대 어르신 모든 세대, 가족이 함께 성회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오게 될 때 가족 안에 치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 그리고 남과 북의 분단의 장벽에 무너지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교회나 단체는 DMZ 815 Gathering.net에 들어가셔서 등록하시거나 문의 070-4232-5004, 010-4875-0688 하시면 됩니다. 3끼의 식사와 전망대 입장료를 포함해서 3만원(유,초등 1만원, 중등 2만원, 고등이상 3만원)이 등록비입니다. 숙박은 각자가 해결합니다. 특별히 춘천지역이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병철 기자 / kokkos21@gmail.com

그리고12쪽 하단에, 전국 각지에서 DMZ815 게더링에 참석하려고 옵니다. 홈스테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목사 010.6254.3162

해방 70년, 분단 70년

DMZ를 넘어 예루살렘으로

DMZ 12전망대(12문)에 올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왕의 대로를 열라

리엡지 815 게더링
DMZ 815 Gathering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 24:3-6)



2015년 8월 15일

DMZ-12개 전망대

강화 제적봉평화전망대
김포 애기봉전망대
파주 오두산전망대
파주 도라산전망대
연천 승전전망대, 연천 태풍전망대
연천 열쇠전망대, 철원 평화전망대
철원 승리전망대, 화천 칠성전망대
양구 을지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



DMZ 155마일에서 손에 손잡고
기도하게 될 때 **휴전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2015년 8월 14~15일 14:00 (등록 13:00)
춘천 호반체육관, 12개 전망대

등록비 30,000원 (식사 및 전망대 입장료 등)
농협 355-00225271-13 (한코리아지넷)

등록마감 2015년 7월 31일 (금)
• 단체입금시 입금 후 전화주세요.

홈페이지 DMZ815gathering.net

춘천성시화운동의 불씨였던

춘천직장선교연합회



격주로 돌아오는 금요일, 낮 12시 도청 아래 자리 잡은 소양성결교회에서는 작은 예배 모임이 열립니다. 5명, 많아야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모여 누군가 들고 온 기타로 찬양을 부르고 해를 거듭 넘겨 전해 내려온 성경책을 편 채 그날 초청된 사역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30분을 넘기지 못하는 예배 모임이지만 참석자들 모두 깊은 마음의 평안함과 직장으로 부르심 받을 때의 초심을 되돌아보고는 합니다.

강원일보 내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신우회'가 드리는 평범한 예배 모습니다. 예배 모임이 끝난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30분간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신문사 내에서도 다양한 국(局)이 있어 직종이 저마다 다르고 근속 연수는 더더욱 차이가 있지만 '크리스천'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타와 성경책을 들고 오고 식사비를 걷고, 초청할 사역자와 연락을 취하는 등 누군가의 '수고로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로움도 수십 년째 가뭄으로, 당연한 듯 감당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는 합니다.

각 직장별로 참석인원, 예배 진행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춘천에는 이런 직장별 신우회 모임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도청, 도교육청, 시청, 법원을 비롯한 관공서와 강원대, 한림대등 교육기관, 금융기관, 또 강원일보 춘천KBS방송총국등 언론사부터 월드비전과 같은 사회복지기관, 유니베라 등 직장도 다양합니다. 올해는 택시기사선교회 박무영 장로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춘천시내 다양한 직장별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워 놓으셨다는데 새삼 감동스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춘천시내 직장별 신우회가 다시 모여 만든 모임이 바로 춘천직장선교연합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연합회를 25년이 되는 세월동안 지켜주시고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직장선교연합회의 뜨거운 열정이 1990년대 춘천성시화 운동의 불씨가 됐는데 "도대체 춘천이란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천직장선교연합회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낮 12시 춘천 도심의 중심부인 명동에 자리 잡은 춘천동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직장 신우

회별로 드려지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이 예배를 섬겨 주시기 위해 오시는 사역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소식을 나눕니다. 예배 후에는 춘천동부교회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시는 맛있는(정말 맛있는) 점심식사로 한 끼를 나누고 오후1시가 되기도 전에 회사로 발길을 돌립니다.

'직장인에게 유일한 낙이 점심시간'이라는 매우 널리 공감 받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전, 오후 심지어 저녁까지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개인사를 돌볼 수 있는 '숨통' 같은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많은 직장인 크리스천들이 정기적으로 '예배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사로 채워 보내는 기쁨보다 예배시간을 보내는 기쁨이 크지 않다면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에드 실보소는 직장 사역을 크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1단계는 직장인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성경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3단계를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단계, 4단계는 이를 통해 직장을 변화시키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춘천직장선교연합회는 험난하고 거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거룩을 따로 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각 직장인의 업무도 있다는 것을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 단계와 비전은 저마다 다르지만 직장선교연합회 모임 가운데로 부르신 데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믿고 서로 연합해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스트레스, 분주함이 커지면서 요즘은 어느 연합회든 연합회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직장선교연합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말에도 모여 단합을 도모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로써 연합회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약하나마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춘천 도성을 변화시키고, 각 직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길 많은 성도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신하림 총무 (강원일보 기자)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정기모임 안내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
뜨거운 기도와 사랑이 어우러지는 곳
멋진 직장인의 점심시간에 초대합니다.
(맛있는 점심식사 제공)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낮 12시 동부교회

총무 신하림 010.4501.9305 / 회장 박무영 010.8251.3291


네팔이여 일어나라!

Mission 1

네팔에서 있었던 중심 사역을 3일의 기록으로 선교 보고를 대신합니다.

(선교일정 : 7월12일[월]~24일[금] 13일간, 참여인원:12명)



네팔은 10대 고봉 중 8개와 7,650m이상이 넘는 산이 50개 넘게 있는 곳이요, 문화와 언어가 다른 60여개 종족들로 구성된 국가이다. 세계유일의 힌두교 나라요, 석가모니의 탄생지고, 히말라야의 만년설과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인 까닭에 많은 산악인들과 순례자들이 찾는 곳이다. 인구는 2,952만 명,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95%가 농촌에 거주한다, 아리안 족 80% 몽골족17%, 국민소득 562불, 평균 수명 59세이다, 종교는 힌두교80%, 불교11% 기독교2%이다. 특별히 2015년 4월 25일 11시 56분 26초에 7.8의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최소 8,000명이 사망하고 16,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정확한 사망자의 수는 아직도 잘 모른단다. 이 일로 국제 사회는 구호 단체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춘천기독교연합회에서도 네팔 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그 현장을 방문하는 우리에게 500만원을 위탁하였다. 우리는 인도 비하르와 네팔을 한 주간씩 방문해서 의료와 봉사를 진행했다.

2015년 7월 20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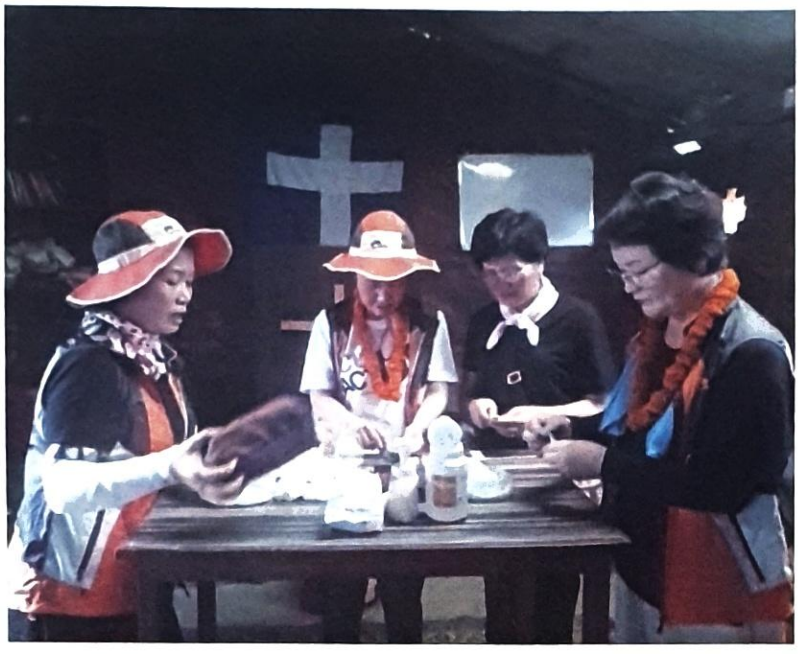
우리는 인도 뉴델리에서 한 시간 조금 더 걸려 카트만두 공항에 내렸다. 공항에서 비자를 받고, 짐을 찾고, 차를 기다리는 동안 공항 직원들에게 한국서 만들어 온 수건을 나누어 주고, 출구 앞에서 "네팔이여! 일어나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앞세우고 사진을 찍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점심을 먹고, 오늘 사역지로 떠났다. 오늘은 쌀25kg 100포를 나누어 주는 것과 100명의 사람을 치료 해주는 것이 목표이다. 장소는 카트만두 외곽 빈민촌 디달톡 교회이다. 현재 네팔은 지진이 났다고, 외국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사람을 돕거나, 금품을 지원할 수 없다. 공인기관에 위탁을 해서 대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직접 현지인들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고, 치료를 하는 것은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 오래 준비된 것이다. 나는 쌀을 나누어주고, 의료팀은 치료를 시작하였다. 교회 안은 갑자기 야전 병원이 되었다. 나는 쌀을 사역자가 정해주는 가정들에 지급을 하였다. 치료는 침술, 이침, 전자 침, 약과 비타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진행 되었는데, 나는 쌀 분배를 마치고, 비타민을 관리 했다. 영양이 부실한 현지인들을 생각하여, 비타민 많이 준비 해갔다.(120만원)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끝이 없어서 저녁 8시가 되어서 끝났다. 150명이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타갔다. 우리는 숙소에 와서, 오늘 평가와 내일 일을 나누고, 비상식량 국수에 더운 물을 부어서 한 그릇씩 먹는 것으로 저녁을 대신하고 첫째 날을 마쳤다. 참고로 이번에 한국서 200kg가 넘는 물품 때문에 공항 통과에 애를 먹었는데, 수건300장[2덩이], 비타민1상자, 약품1상자, 비상식량1상자, 사역자들 선물, 등이다.



2015년 7월 21일(화)

오늘은 카트만두에서 좀 떨어진 사곡 마을로 갔다. 지진으로 300명 이상이 죽었고, 가족이 살아남지 못한 집은 아직 땅속에 시신이 묻혀 있는데 그 수가 얼마인가를 모른다고 한다. 돌아보니, 지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잔해나, 반파된 된 집들이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표정 없이 앉아 있거나, 골목길을 서성인다. 우리는 마을 중앙에 큰 우물가에서 손을 잡고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 중국 적십자 텐트도 보였다. 우리는 마을 앞에서 계속 30분을 더 달려서 인근 가장 높은 산등성이로 올랐다. 속절없이 비는 내리고 마을은 안개가 자욱하였다. 도심으로 내려와 식당에 점심으로 볶아 먹는 면을 시켰는데 너무 짜서 반찬이나 할만 했다. 아무도 먹지 못하고, 가지고 온 비상식량을 물에 타서 먹었다. 오후 사역은 무너진 흙집을 짓는 것이다. 이 집주인 기른 이란 형제는 신혼으로, 고아이며, 나이는 21세이다. 건물청소를 해서 사는 사람이며, 교인이다. 우리는 흙을 펴 옮기고, 벽돌을 모으고, 집 기초를 파는 일을 하였다. 눈을 뜰 수 없게 땀이 흘렸다. 그리고 의료팀은 현장 위 동내 사람들과 아이들 치료를 시작하였다. 저녁때가 되어 콩국수를 삶아서 아이들과 치료받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로 하였는데, 국수는 어찌 어찌 해서 끓였는데, 국물을 만들 콩가루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다. 할 수 없이 비상식량을 물에 풀어서 국물을 대신하였다. 달자 지근한 맛국수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것이 한국 음식인 줄 알고 잘들 먹었다. 드디어 집 기초를 다 팠다, 옷도, 신발도, 손도 완전히 노동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 공사 현장에서 찬양하고, 축복기도를 드리고, 두 부부에게 건축비 일부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돌아오는 차창에 비가 내리고 도시는 짙은 어두움이 내리고 있었다.







2015년 7월 22일(수)

오늘은 멀리 있는 마을에 가기에 8시에 출발을 하였다. 도심을 벗어나고 있을 때 의외로 지진 피해가 많다는 카트창조마을에 잠시 차를 세웠다. 이곳은 이전에 현지 사역자 나지브 형제가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부모들의 항의로 쫓겨난 곳이란다. 이유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란다. 지금도 이 마을에는 골수 힌두 교인이 많이 살고 있단다. 이번 지진은 우상이 심한 곳과 제단이나. 형상들이 많이 파괴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차는 굽이굽이 돌면서 산골 마을을 올랐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레레지역 바리데욱 마을에 한 교회에 도착하였다. 현지인 목사 '뮈헨드라'가 우리를 맞이했다. 이 교회는 아이와 어른 합하여 70여명이 모이고, 영국과 조 씨 성을 가진 한국 선교사가 후원을 하는 교회라고 한다. 우리는 라면과 한국서 준비 해온 수건을 전해 주었고, 의료 선교 팀은 교인들과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다. 우리의 점심은 준비해간 망고로 대신하였다. 돌아오는 길은 차량에 막혀서 저녁때가 되어서 식당에 도착을 하였다. 오늘 이곳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데, 5명의 사역자와 충성스러운 집사 한명이 멀고 먼 길을 며칠 씩 걸어서 도착하였다. 이들의 교회는 하나같이 다 무너졌고, 어머니를 잃은 이, 교인들을 잃은 이들이다. 저녁은 임 장로가 제공을 하였고, 우리는 5명의 사역자에게 500불씩 비상생활비로 2500불을 현장에서 전달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평가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는 것 같은, 쿵하는 소리와 건물이 요동을 하는 것이다. 그때 같이 있던 라지브와 카운터 직원이 용수철같이 밖으로 튀는 것이다.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앉은 곳이 계속 흔들리는 것이다. 밖에는 개들이 일제히 짖고 야단이었다. 이것이 지진이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인근에서 4.5의 지진이 있었단다. 우리는 돌아갈 안전한 집이 있지만 네팔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조용호 목사 (춘천그리스도교회)



CCC 일본 후쿠오카 단기선교(6/30~7/14)를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14학번 박민수입니다.

저는 올해 6월 30일 ~ 7월 14일까지 일본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떠나는 단기선교였기 때문에 가기 전에는 걱정도 많이 됐지만 지금은 잊지 못할 추억들과 그리움이 남은 단기선교가 되었습니다.

단기선교를 가기로 작정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작년 금식수련회 때 처음으로 일본단기선교를 마음에 품었고 그 뒤에 선교채플을 통해 일본을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단기선교이외에 모든 CCC 프로그램들을 참여해봤던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단기선교를 예전부터 소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기선교를 작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일본은 놀러가는 곳이다, 단기선교를 갈 거면 동아시아로 가라 등의 우려 섞인 말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일본을 품을 수 있었고 일본단기팀에서도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자며 더 팀이 하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굳건한 마음을 품고 일본으로 나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후쿠오카땅에 발을 딛는 순간 시작됐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기대되고 또 걱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단기팀이 도착하여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7월 1일부터였지만 당장 7월 2일에 코리안 나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번째 코리안나이트를 통해 주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루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정



말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고 무엇보다 작년, 재작년에 만났던 친구들이 다시 연결되어 코리안나이트에 오는 것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리고 그리스도인이 1%도 안되는 일본에서 우리들을 기억해주고 찾아온다는 것에 단기선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나이트에서 김남인 간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울면서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로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코리안나이트 이외에도 한국음식시식회, 패스파인딩 등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일본인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조금씩 예수님을 심어간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했고 쉬운 일만 있는 선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란 나라가 치안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국민성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각 동네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신사가 있고 수만개의 신이 있는 심지어 도라에몽도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곳에서 받는 영적인 공격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뜻밖의 곳에서 선교하는 마음을 공격당하기도 하고 팀의 분쟁을 이끄는 공격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화, 미움, 질투 등 원치 않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저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할까하는 불안감이 너무도 강하게 저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처음으로 일본교회를 갔을 때 저는 그곳에서 완전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 곳에서 일본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선교에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본에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었던 초심의 마음을 찾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사역일정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정말 나약한 존재이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패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는 일본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너무도 아쉬웠고 다시 꼭 찾아가고 싶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힘들었고 다사다난했지만 주님과의 동행을 느끼고 싶다면 일본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CCC 강원대 박민수 형제



JDM 춘천지구 해외선교훈련 캄보디아 프놈펜(7.7~18)을 다녀와서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 갑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 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 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 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디사이플스' 앨범에 수록된 '선교사'라는 CCM입니다. 10일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옆에서 보고, 듣고, 지켜보면서, 그리고 함께 도우면서 캄보디아 땅의 어두운 현실, 안타까운 상황들을 알게 되니 지금은 더 가슴에 와닿는 CCM이 되었습니다.

약 천오백만의 인구가 있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97프로가 불교도입니다. 절이 약 2만 5천개정도 되고, 승려만 5-6만명에 육박합니다.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식민지의 역사, 잘못된 지도자를 만

나 지식인 2백만이상이 학살당한 킬링필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캄보디아가 100년이나 뒤쳐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낙후되고, 국민들도 좀처럼 깨어나기 힘든 국민성이라 합니다.

춘천지구 선교팀은 프놈펜에 있는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시골교회만 순회하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새영광교회, 평화교회에서 짧게는 1박에서 길게는 3박까지, 교회에서 묵으면서 선교사님들을 도와 어린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날씨도 덥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피와 땀, 눈물로 사역하셔서 맺힌 열매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참고, 인내하며 모든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오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쉽게 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문화, 찬양, 한국어는 교육의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평화교회 사역 때부터는 조금씩 아픈 지체들도 있었으나, 50여 명의 춘천지구 지체들 모두 큰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은 세 번째 비전트립인데, 그동안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사역만 해봤던 터라 처음 접하는 어린이 사역이 조금 낯설었고,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캄보디아 땅의 순수하고, 맑은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도리어 제가 힘이 나기도 했고, 이 캄보디아 땅의 복음화의 초석이 될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명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명 한명의 아이들이 참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었고,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모두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아이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교육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역의 열매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일궈오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열정,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지인과 똑같은 환경과 여건에서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모아 공동체 형식으로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었고, 사역 중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해서 물새라는 별칭을 가진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쉴 새 없는 설사로 고생했다는 분도 있었고, 사역초기 사역비가 없어 고생하기도 했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땅의 어린 영혼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신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선교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을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결심만 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 땅의 아픔과 고통을 새기며, 더 중보해야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선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후원해야겠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삶에서 적용하고, 나타내서 열매 맺길 원합니다.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주신 모든 공동체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JDM 춘천지구 강원대 최성문형제



통일에의 접근

서 훈 교수 (이화여대 북한학)

United view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3차 춘천모임 강의를 정리한 글입니다.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본인이 북한에서 2년을 살면서 생활했던 경험을 통해 느꼈던 것과 지금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한다. 남한 사람으로 북한에서 2년간의 삶은 흔한 경험이 아니다. 북한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거주했다. 2000년 정상회담 전이라 냉정하고 냉혹한 시기였다.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처음 발생했고, 1994년 봄에는 한반도 전쟁위기설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었다. 카터 미 전(前)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과 회담하며 대타협을 했다. 북한 영변 핵발전소를 동결하고, 미국은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대신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합의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주도하에 KED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대표로 들어갔다. 그 당시 우리 측에서는 한전 시공사 근로자들이 많이 올라갔고, 북쪽 근로자들도 들어와 함께 생활했다.

우리는 1997년 여름에 함경남도 신포인 명태로 유명한 곳에 갔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였다. 신포는 어촌마을로 허허벌판이었고, 그곳에 발전소를 짓기 위해 땅을 닦고 길을 만들고 많은 장비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을 했다.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북쪽 사람들과 함께 그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했기에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많았다. 들어가기 전에도 많은 협상이 필요했고, 들어가서도 협상이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외부와의 통신, 출입 문제, 체류 허가, 체류기간 동안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 교통사고, 범죄, 우리 인원이 구금될 때 법 적용문제, 비행기는 어디로, 배는 어디로, 사람은 어디로 오갈 것이고 어디까지 다닐 수 있는가? 사람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협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도 긴장했는데, 북쪽사람들도 우리보다 긴장했을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다. 북쪽 엘리트 간부들은 경수로 현장에 한 번씩은 다녀갔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행동하는지 좋은 학습현장이 되었다. 서로 만나는 경험이 쉽지 않았기에 서로를 탐색하고 관찰하는 기간이 되었다.

다양한 성격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경제적 격차에서 생겨나는 문제들과 사고체계나 이념, 제도, 법, 문화, 언어도 다르기에 서로 익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들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한 여성이 자신들에게는 생명이 두 개가 있는데,



서 훈 교수 (이화여대 북한학)

하나는 부모님이 주신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이 주신 생명이 있다고 했다. 수령이 뇌수처럼 통치하고 있다는 말과 가부장적 가정이라고 사회주의 대가정이라 고백하며 생명이 두개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본인은 생각을 많이 했다. 과연 물리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한들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하나로 동화될 수 있을까? 과거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같은 정서와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될까? 단지 핏줄이 같고 역사 언어가 같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워낙 오랜 세월을 떨어져 있었기에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구나! 라는 느낌을 그곳에서 갖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다. 초기에는 여인숙(초대소)을 절반으로 나누어 사용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 나오고 싶어 가건물을 짓고 사무실과 숙소를 이사했다. 그런데 별것 아닌 일이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 생겼다. 우리가 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는데 1면에 김정일 사진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의 체제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의 존엄을 모독하는 것이라 간과할 수 없는 큰일이었다. 이 일로 어느 기간 직원들이 철수하고 일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현재 전단으로 문제를 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제적 격차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 북한 근로자들은 전부 말라서 보기에 안타까웠다. 남쪽에서 점심을 공급하고 자율배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적당량을 먹더니 나중에는 담아가는 음식의 양이 달라졌다. 그 당시 북한에선 풍족하게 먹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가끔 차를 타고 마을 주변을 돌아보며 굴뚝에 연기가 나는 지 살펴보면 연기가 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추운겨울에 저녁을 못 먹고, 구들장도 덥히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마음이 아팠다. 우리 근로자들이 저들을 돕고 싶어서 눈에 띄지 않게 도와주려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물건을 주면 그들의 대표에 의해 어김없이 내 책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강

한 어조로 "우리가 거지냐!" 라는 말에 굉장히 민망스러웠다. 동기가 그렇지 않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니 여기에 지혜가 필요함을 느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어렵다는 교훈이었다.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주려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모양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혹여나 우리가 우월감이 있다면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받은 부지에 교회를 세워 함께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북한 땅에 들어와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땅에 긍휼을 안 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며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며 서로 적응을 했고, 내 것만 우기지 않고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충하며 사는 새로운 사회 패턴을 만들어갔다. 양국간에는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사회문화교류, 인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행되고 지켜지기 어렵다. 과정이 복잡했다. 목표가 같고, 이해가 같아서 합의가 되었던 것이라도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여러 과정도 거치면서 난관을 극복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다. 남북간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도로를 놓고, 철도를 뚫고, 이산가족 상봉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도 언론에 나오는 것은 합의했고 만나고 헤어졌다고만 나오는데, 이것을 성사시키는 협의까지만 해도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간단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통일이란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정말로 복잡한 문제이다. KEDO 인원이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다. 현재 남북 국력의 문제를 보면 결국 우리가 북을 품어야 한다. 우리가 더 어려운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북한 사람은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 허세도 많고 자존심이 강하다. 이것이 통일을 해 나가는데 더 어려울 수 있는 점이다. 어릴 적부터 우리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갖도록 교육되어 있다. 우리가 잘 품고 소화해나가야 하는 실제적인 짐인 셈이다.

요사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있다. 그러나 통일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간, 희생, 노력, 눈물이 필요하다. 통일의 관건은 우리들의 자세, 입장, 태도 등이 관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본인은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북한을 통해 우리 민족에 복음을 허락하셨다. 남쪽이 복을 받도록 북쪽을 통로로 사용하셨다. 북쪽의 역할이 그것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통일을 주실 것인데, 통일의 실마리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통일은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북한은 우리가 통일을 떠들수록 불안해한다. 남한에서 요란하게 통일을 얘기하면 남쪽에서 흡수 통일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

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꾸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나중에 통일을 이야기 하자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는 도둑처럼 올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가 통일로 바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북한의 붕괴가 한민족이니깐 그냥 통일하라고 어느 나라가 동의할 것인가? 유엔 평화 유지군이 들어가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분단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다. 통일을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북한 사회를 보며 느끼는 것은, 나의 교만이 통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본다. 나는 가진 자, 너는 못 가진 자! 나는 주는 자, 너는 받는 자! 라는 도식이라면, 통일은 어렵다. 우리가 품을 준비를 할 때까지 통일은 저 멀리서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감동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듯이 논쟁에서 이기면 사람을 놓친다. 감동을 주어야 관심을 갖게 된다. 많은 북한사역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5년, 10년을 저들을 돕고 감동을 주니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인지 다 알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제44차 춘천모임
일시 : 8월10일(월) 저녁7시15분
강사 : 백주석목사(광주포도원교회)

교회는 교회답게 통일을 준비하면 좋겠다. 북한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깊어졌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몇 마디도 나누기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양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런 사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 세상은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에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가치를 바깥쪽으로 흘려보내지 못할망정,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시기와 정죄를 바탕에 둔 논의를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도적인 지원 문제로 교회도 논란 안에 있다. 마25:40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다. 세례요한도 옷이 두벌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누어 주라고 했다.

통일을 목표로 나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내 심령이 가난한가?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품어보았는가? 얼마나 애통해 보았는가? 화평케 하는 자로 정말 있었는가?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굶주려하고 목말라 했었던가? 하는 생각부터 출발해보면 좋겠다. 통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묵상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

이은정 기자 / graceyh02@hanmail.net

인간의 본질

정혜례나 (강원기독교미술인협회 부회장/ 홍천동면감리교회 사모)



2009 / 철에 우레탄 도장 / 1500 X 3000X 1800

원죄성을 타고난 인간은 본연없이 대로를 직진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존재의 이유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이 없는 한
나약한 인간은 넓은 길로 휩싸여 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역행하는 고단한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은 결국
하늘과 잇닿아 구원에 이른다. (작가노트 중)

※ 서울 감리교본부 1층 로비에도 작가의 작품 'Selfless', 'Resurrection' 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기독인의 역할

기독인은 적어도 명확한 두 종류의 신분을 가진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을 통한 천국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는 동시에 그가 속한 지역과 민족과 나라 안의 선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 도시와 나라의 평안과 번영과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 가는 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한편,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춘천 안에 예수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져서 모든 시민들이 천국백성들로 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현안인 시의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 바른 길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살펴 협력할 면에는 함께하고 또 기도하며 그런 일들을 통해 이 땅에 행복한 시민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춘천시는 지금 2015년을 통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7대 과제를 정하여 내놓았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개략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 45만에 대비한 광역도시기반의 구축하겠다.
2) 2천만의 관광객시대를 열겠다.
3) 안정되고 젊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4) 서로를 배려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
5) 육아 교육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
6)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
7)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를 위하여 시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시정비전으로 하고 시정목표를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명품관광, 창조경제, 사회복지, 생활환경, 농림중심, 문화체육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소통과 위민 배려를 기조로 삼고 있다. 실질적인 면에서 시는 현재 강원도와 함께 동아시아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 랜드 코리아"를 건설하여 세계적 관광명소 조성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호텔, 아웃렛, 워터파크 등) 약 5천억원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39만평을 개발하여 연 200만명의 관광객을 일자리를 약 1만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레고 랜드 진입교량을 이번 5월 착공하였다.

또한 100만명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도시를 향한 비전을 위해 다채로운 관광상품을 육성하려는 계획등과 함께 창조 기술 산업개발을 위하여 나노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후평동을 중심으로 항암치료제, 화장품 나노 신소재 개발 계획등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의 재창조를 위하여 춘천시 청사의 건립을 현 위치에 세울 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의 구체적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45만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도시 공간의 구조를 개편하고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자연이 숨 쉬는 녹색도시조성을 위하여 도심 속의 여가 공간을 넓히고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 하천을 만드는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명품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레고랜드 개장에 최선의 지원을 하며 삼각관광벨트를 통하여 삼악산 로프웨어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그 외에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신 창조산업육성을 통한 바이오 영상산업분야 또는 건강생명 레저관광 나노 바이오 기술 사업화지원체계 구축,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해 시도하며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모든 기독인들은 이런 선한 사업과 비전들이 도시 안에 잘 이뤄져 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우리가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가 필요하거나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간도 재정도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욱 교회를 통해 연결 될 수 있는 국제적인 라인을 구축하고 비전을 공유하여 연구적 과제 또한 녹색 자연적 행복도시로의 비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뿐이 아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경우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도 아낌없어야 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때로 우리 민족정신과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게 될 우려가 높은 동성애 옹호 법안이라든가 테러분자들의 유입과 함께 반민주적 공포 사회로의 회기를 꾀하게 될 잘못된 종교들이 파고드는 마수가 있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언과 수고도 아끼지 않는 지혜로움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시장님의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 타종교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언제나 만나보면 행정에 잔뼈가 굵은 인생의 선배로서 비록 우리와 다른 신앙의 바탕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겸손하고 진중하신 모습으로 협력하려는 마음을 볼 수 있어 우리도시가 참으로 복을 받았음을 느끼게 된다. 평소 시장님의 행보를 볼 때 경청과 폭넓은 관계 형성, 누구의 의견도 들으려 하는 열린 행정에 대한 특별한 소신등이 신앙의 벽을 넘는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목사님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이에 우리 기독인들도 도시를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일에 적극적인 협력자로 함께 하여 장차 이 도시를 통한 통일의 비전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기도와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영춘 기자 / gloryyc@naver.com

아이들이 행복한 작은 천국

은빛 유치원(원장 반은경)은 아이들이 행복한 작은 천국을 꿈꾼다. 지난 1999년에 설립인가를 받고, 새로운 천년에 문을 연 은빛유치원(동내면 거두택지길 47)은 국제적 교육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반은경 원장의 신앙 이념이 깊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그 현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자.



은빛 유치원
반은경 원장

반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린이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 교육현장에 직접 뛰어든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자라온 배경과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저는 춘천이 고향으로, 일찍부터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교회에 열심이셨던 어머니(황순중 여사)의 신앙을 이어 교회반주자와 교회 어린이부서 교사를 역임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이교육에 깊이 뛰어들 생각은 아니었고, 그저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을 먼저 사랑하셨던 모친과 일찍 유아교육을 전공한 동생이 있어 전문 어린이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이 보다 정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도 대학원에서 어린이교육을 전공하고, 몬테쏘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어머니와 동생 등 온 가족이 교육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유치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립초기, 어린이 기관이 들어오면 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는 소문이 있어 동네 주민들과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경찰 입회하에 개원식이 열리는 진풍경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누구보다도 동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지지가 있지만 말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서 원아들이 많아져 초기에는 90여명으로 출발한 원아들의 수가 한 때는 200여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몬테쏘리 교육을 넘어 보다 큰 교육이념을 담아 2007년에는 은빛 유치원으로 개명, 비전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난 해에는 신앙인으로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난 2014년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조금 신비주의적일지 몰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의 사역에 그 누군가가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인(sign)중의 하나는 원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과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시다는 긴장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지난 10여년의 저의 어린이 사역을 돌아보게 하셨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의도와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이들을 향한 초심의 마음을 지적하셨습





니다. 돌아보니 제가 아이들을 깊이 사랑했던 초심을 많이 잃었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 또 같이 동역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대로 아이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학부모님들과도 깊이 있게 상담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원아들의 숫자를 떠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 섬기는 모든 교사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작은 천국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고요.

올해는 사역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넓혀 미얀마 어린이들도 돕는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슈바이처의 책을 읽으며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습니다. 2010년에 고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춘천성시본부 이사장 역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유치원의 한 층에 어린이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어린이들, 제3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준비하고 후원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는데, 그 구상이 올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얀마에 고아원 설립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친구와 함께 올 초에 미얀마 국경지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미얀마의 보육원과 고아원, 유치원

을 돌아보면서 왠지 모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다리를 건너 인근의 태국 메솟을 가게 되었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염려와 사역적인 부담감이 컸지만 주님께서는 비몽사몽간에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믿기만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고 너는 너의 발걸음만 옮기면 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적금을 깨고, 차를 팔아 미얀마와 태국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Grace-Light
kindergarten
은빛유치원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어린이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주님이 주신 국내 사역지인 은빛 유치원이 '아이들이 행복한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김순자 원감, 모든 교사들은 어린이교육의 초심으로 돌아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역에 대한 비전도 부어 주셨기에 미얀마 미야와디의 국경지대인 태국 메솟에 30명 정도를 수용할 복합 건물을 이미 임대하고, 어린이재단(GLCF. Grace-Light Child Foundation)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태국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는 수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셀 수도 없는 많은 아이들이 국경지역에서 1,000바트(4만원)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20돌을 맞은 강원CBS 청년답게 일해보자

20돌을 맞은 강원CBS에 7월 새로 부임하신 청년의 열정을 품은 나이영본부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지역 교회들과 함께 가는 강원CBS로 만들어 가고 싶고, 교회들과 함께 갈 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다짐이 춘천과 강원도 복음화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강원 CBS
나이영 본부장

나이영본부장님, 안녕하세요? 호반의 도시, 성시화의 도시인 춘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부장님은 춘천에 오시기 전에는 CBS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94년에 CBS에 종교부 기자로 입사를 해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부, 사회부도 거쳤고 종교부장을 역임하고, 춘천에 오기 전에는 선교기획국장을 맡아서 교회와 관계된 정책이나 기획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행정과 예산도 맡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기획국장은 대교회 실무 책임을 담당하는 자리로 교회 후원을 책임지거나 목회자들 설교도 런칭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기사화는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기자협회도 만들어서 '우리는 촌지 받지 말자' 라고 외치는 등 좀 강직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후원금을 요청하는 일을 할 때는 입을 떼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책을 맡아서 안 할 수 없기에 기도하고 가지만 허탕을 치기를 몇 차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과 기획, 후원금 모집 등을 두루 거치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더니 이제 지역 야전 사령관을 해 보라고 춘천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CBS가 춘천CBS에서 강원CBS로 바뀌고 난 다음에 부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춘천만이 아니라 원주, 횡성, 화천 등 강원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할 폭이 넓어지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으로 임하는 마음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전체 CBS로 볼 때에 강원CBS는 열악한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필요한 곳에 왔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원CBS에 내가 꼭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부장 취임예배 후에 지역 교회들을 순방하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는 춘천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했고, 지금은 원주 교회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원주는 송신소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아직 백지 상태입니다. 기자 한 명도 없습니다. 원주에 사무실도 만들어야 하고, 직원도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소망이 넘칩니다. 제가 서울에서 선교기획국장을 하면서 신천지 OUT 8부작을 만드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신천지 8부작은 CBS로서는 제작 규모나 기간이 만만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 하다 보니깐 이젠 전문가가 다 되어 신천지와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할 정도입니다. 원주가 신천지 빌립지파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교회들의 피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제가 지역 교회들을 위해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역 교회에 다니면서 신천지 예방과 대책에 대한 특강을 하면 실제적으로 교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들과 가까워지고



연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철학도 CBS는 교회와 더불어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코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감리교목사입니다. 원래 목사 안수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나와서 감신대에서 M.Div를 하고, 졸업 후에 CBS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감리교의 제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목사 안수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 인턴 제도가 생기면서 기관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인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버님이 좋아하셨기에 일종의 효도도 한 셈이지요. 감리교 목사다보니 감리교가 많은 강원도 교회들이 거부감이 없이 환영해 주는 면이 많습니다. 강원CBS가 원주나 다른 지역에 더 많이 확장해야 할 시점에서 제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강원CBS에 보내시려고 나를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강원CBS 본부장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주하기보다는 강원도에 꼭 필요한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본부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작지만 큰 다짐을 세 가지 정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원CBS가 춘천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영서 지역 교회 전체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CBS는 교회에 발을 디뎌야 하고, 교회에 뿌리

를 내려 교회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하고, 그 자산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 것이 CBS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지역 교회들과 함께 가는 강원CBS로 만들어 가고 싶고, 교회들과 함께 갈 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CBS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강원CBS가 세상을 향한 위상이 높아질수록 교회의 위상도 높아지리라 봅니다. 그러려면 컨텐츠로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직 재정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지만 컨텐츠 제작에 힘을 쏟아 수준 높은 방송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 라디오 쪽으로만 힘을 쏟고 있지만 앞으로는 TV에도 더 많은 컨텐츠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교회들의 소식을 담은 선교 TV 뉴스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강원CBS 조직이 좀 더 젊어지고 생기 있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고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원 CBS가 20돌을 맞았습니다. 이제 청년답게 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재도약의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강원CBS 사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사옥에 의견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경영자로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불을 댕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옥을 위해 기도하면 자꾸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카메라를 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일하는 선교 센터의 장이 자꾸 그려집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들이 힘을 모아주면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강원CBS 청취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내려와서 중앙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정을 느꼈습니다. 중앙에서는 애청자들과 긴밀하게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지역에서는 지역 애청자들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직 로컬 프로그램 배정 시간이 적어서 아쉬운 와중에서도 청취자들 중에서 옥수수나 떡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이 있고 한 식구 같았습니다. 강원CBS가 어려운 중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애청자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은 고김주환목사님의 장례에 동참하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목사님이 그동안 CBS를 위해서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제 마음에 확 와 닿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원CBS 애청자로서 목사님의 큰 사랑이 내 마음에도 깊이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제 마음에 확 생겼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동안 강원CBS가 결코 직원만의 일터가 아니라 교회와 애청자들과 한 식구임을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기자 / kokkos21@gmail.com

사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 103:1-3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네 죄악을 사하시며"입니다.

〈사한다〉는 말을 〈사라흐〉라고 합니다. 그 뜻은 능동분사형으로 끊임없이 계속하여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86:5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 계속 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래전 화천에서 너구리에 물려 강대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숨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좀 더 일찍 해독주사를 맞았으면 살았을 터인데 그 사람은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그리스도의 피는 해독주사와 같습니다. 모든 죄를 없앱니다. 1994.2.8일자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었던 디 인펜던트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양의 피가 실제로 독사의 독을 없애준다. 여러차례 실험결과 독사에 물린 이에게 양의 피를 주입했을 때, 독사의 독이 해독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양의 피가 치명적인 독을 없애주는 것이다"

놀라운 기사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지요. 그분의 피가 죄의 독성을 가셔내고 독기를 없애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사실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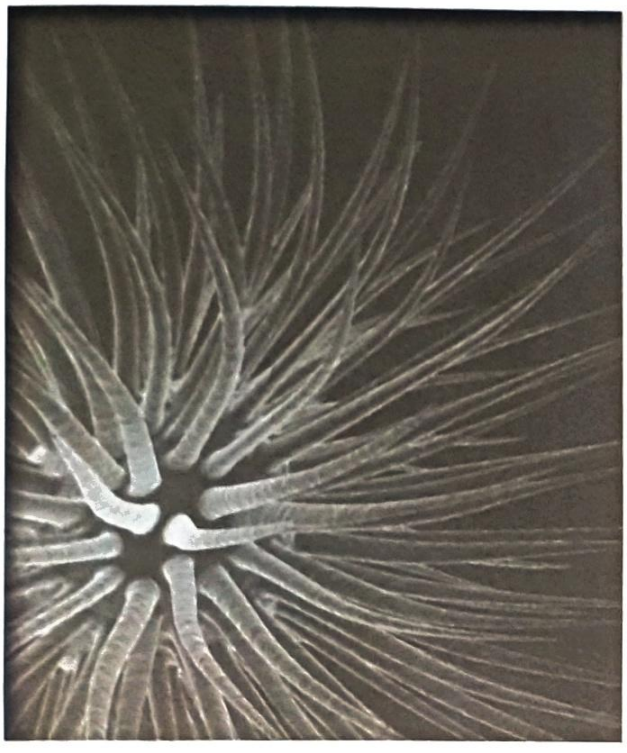
두 번째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은 육체의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육체의 질병, 상한 마음, 실패, 절망, 포기, 고독 등을 통틀어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말은 라파라는 단어인데 그 뜻 역시 단순한 육체의 병만을 고치는 의료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26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즉 야웨 라파라는 것입니다. 1998년 한 해동안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코니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되어 입원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99년 듀크 대학에서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 의하면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 고혈압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이지요. 예배 하나만 똑 부러지게 잘해도 어떤 건강식품보다 나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산감리교회 장춘근목사



자연 치료의 열쇠, 장내 미생물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자연의원 원장 김태균

지난 번 글에서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자연의학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6월로 자연의원을 개원한지 만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치료의 구체적인 길을 확립해 가고 있다.

오늘은 자연치료의 시작이며 핵심인 장내 미생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몸은 수많은 미생물이 세포와 공생하고 있는 거대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약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 세포수의 10배가 넘는 미생물들이 소화기관, 피부, 코, 입, 생식기에 살면서 바이러스와 유해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다. 이 미생물들 가운데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며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장내미생물로 총 무게가 1.5kg 이나 된다. 이들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 흡수하는 기능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균인 식중독균, 곰팡이균 등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며 비타민 등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한다. 특히 이들 세균이 우리 몸 면역력의 80%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우울증, 치매 등의 정신적 문제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장내 유익균들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식품 첨가제, 중금속, 술과 담배, 카페인 등 수많은 독성 물질과 항생

제를 비롯한 갖가지 화학약품, 과도한 스트레스, 미세 먼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장내 유익균들이 죽고 오히려 유해균이 더해지면서 현대인의 면역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으며 소화기계, 피부, 신경계, 근골격계 등 온 몸에 갖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산균을 비롯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항생제나 방부제와 같은 화학물질로 손상된 현대인의 장내미생물을 살리는 것이 곧 건강을 되찾는 길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 있는 균'을 프로바이틱스(Probiotics)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산균이다. 당을 분해하여 유산(lactic acid)을 생산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미생물을 총칭하여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우리 몸속에서 정장작용, 면역 증강, 항암 작용, 비타민 생성, 해독 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비만 예방, 피부미용효과 등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살이 찌거나 마른 체형이 되는 것 역시 장내 미생물 때문임이 밝혀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비만 환자에게 날씬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내 안의 미생물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각종 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치료는 슈퍼유산균을 이용한 해독면역치료다. 변비, 설사, 심한 과민성대장증후군, 구내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피로, 비만 등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우선 장부터 다스려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임을 환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심한 알레르기 비염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30대중반이 되기까지 고생하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유산균을 복용하고 2주 동안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심한 콧물 및 누런코를 쏟아낸 뒤 씻은 듯이 좋아졌다며 몇 번이나 감사인사를 하고 가더니 자기처럼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기 때부터 심한 아토피피부염으로 고생하던 중2 여학생이 유산균을 복용하고 피부가 회복된 뒤 엄마가 보내온 감동의 편지를 잊을 수가 없다.

내 몸 속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통하여 면역력을 키움으로써 슈퍼박테리아(항생제의 잦은 사용으로 내성이 생겨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 신종플루, 메르스 바이러스 등의 공포 뿐 아니라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장내미생물로 총 무게가 1.5kg 이나 된다.
이들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 흡수하는 기능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균인 식중독균, 곰팡이균 등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며
비타민 등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한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의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
니다.

만일 바늘 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나침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영복의 글 중에서

고린도후서 7 : 1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빌립보서 2 :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히브리서 5 : 7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 : 17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투명한 냇물이 흐르던 고향에 대한 추억을 모두 갖고 계시죠?

깊은 물 밑바닥이 훤하게 보이던 투명했던 냇물.

냇가를 휘적이면서 다니던 미꾸라지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또 냇가 뚝방길가엔 풀꽃이 계절마다 피고 지곤 했습니다. 7월엔 패랭이꽃이 허리어깨에서 동그랗게 피고, 달맞이꽃이 밤마다 달을 보면서 노랗게 빛나고, 개망초꽃은 끈질기게 밟아도 피고, 뽑아내도 피고 잘라내도 피어났었습니다. 뽕나무 가지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던 오디도, 산 가장자리에 조랑조랑 달려있던 산딸기도, 또랑가에 숨죽여 살던 새까만 머루도, 나리꽃의 주홍빛도 선명하게 물감처럼 풀어집니다.

한낮엔 냇가에 뛰어 드느라 뚝방길을 걸었고, 빨래를 함지박 가득 이고 가는 아낙네들도 그 길을 걸었고, 해질녘엔 풀밭에 묶어둔 소를 데려 오려고 걸었지요.

아무도 안 보이는 오밤중엔 처녀인 이모가 목욕하는데 아가느라고 거닐던 냇가 뚝방길...

풀잎 한 줄기 뽑아 입에 물고, 들꽃 한송이 꺾어 손에 들고, 동요를 중얼중얼 부르며 뚝방길을 걸었습니다. 뚝방길 옆 산모퉁이를 돌면 쪼그리고 앉아 있던 볼기짝만한 메밀밭이 가난함을 보여 주었고, 비탈 밭에 자라던 옥수수잎이 바람결에 우수수수 소리 내던 울분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지금도 서럽기까지 합니다. 들꽃 한송이 꺾어 들면서 흐드득 웃던 제 곁엔 곤충 한 마리를 잡아도 가슴이 뿌듯해 하던 바로 동생과 앞서거니 뒷 서거니 하면서 걸었던 뚝방길이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생각납니다. 냇가에서 개헤엄치고 노는 것이 행복했고, 감자 넣은 꽁보리밥만 먹었어도 배가 불렀던..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정예현 (강원CBS 보도국장)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해안도로 횟집

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81(영랑동)
1, 2층 음식점 / 3층 민박집
033.637.8898, 010.4113.7244

속초에는 크고 작은 횟집이 무려 400여 곳이나 있다고 한다. 그 중에 이곳 음식점은 건물 외벽에 돌고래 크기만한 물고기 모양의 그림, 익투스 그림이 부착되어있어 이곳이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같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드러내면 당장은 손해인지 이득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 망설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정직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강하게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간증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춘천의 경우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몇몇 음식점을 가보면 우선은 내부 여기저기에 성구액자가 걸려있고 어떤 곳은 찬송가 까지 잔잔하게 들려주는 곳이 있지만 음식점이기 우선 음식 맛이 좋아야하며 특히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음식점을 필자는 무수히 경험해봤다.

우리 크리스천이 경영하는 음식점은 순교적 차원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현실적 차원에서 육의 양식은 물

본지 만평과 예수의 작품, 그리고 맛집 소개 글인 '예수의 味笑' 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가 성시매거진 200호를 맞아 뭔가 특별한 음식점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기도를 하던 중 춘천이 아닌 멀리 속초에 위치한 이곳 음식점을 소개하기로 했다. 우선 이곳 음식점을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름철을 맞아 호황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내 고향 춘천에서 흔히 접해보지 못한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천 음식점이기에 소개를 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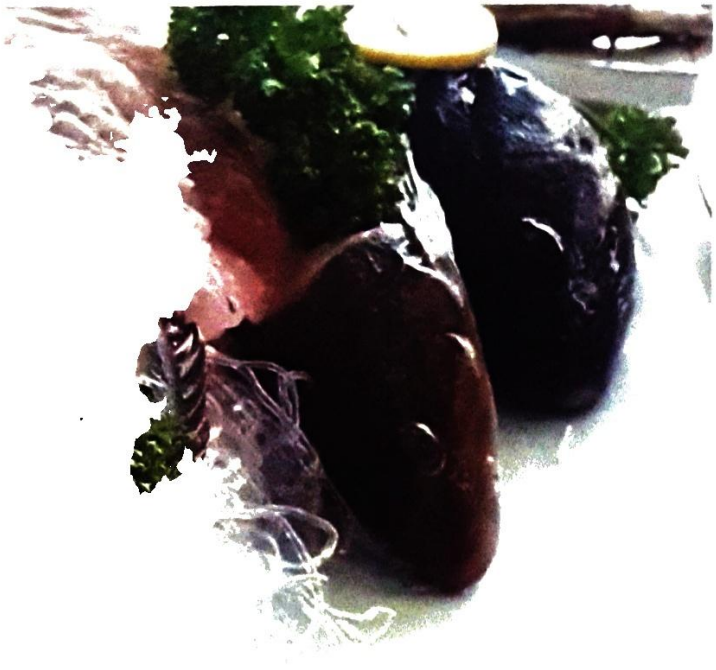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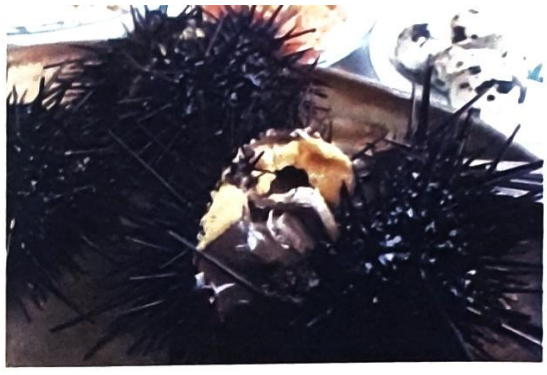
론 영의 양식도 공급해주는 사업장, 사역지라는 것을 깨닫고 영성과 믿음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음식점답게 맛과 서비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보다 뭔가 다르게 높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한다.

필자가 13년전 부터 알게 된 이곳 해안도로횟집은 일년에 한 두번 가족 혹은 세미나 등으로 속초에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곳으로 숙소인 영랑호 콘도와 가까워서 찾게 되었다. 이 음식점은 가슴이 탁 트이는 바닷가 바로 옆이라 전망이 좋아 절로 회 맛이 좋으며 아울러 바로 근처에 등대해수욕장과 속초등대전망대와 영금정전망대가 가깝게 자리 잡고 있어 아이들의 학습장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아주 일품이다.

그 이후로 불과 몇해전 우연찮게 나랑 동갑내기 크리스천이란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정감이 더해가는 음식점이다. (예전엔 고마운 마음에 춘천닭갈비를 아이스박스에 포장해 가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뒤 선물로 준적도 있었다.)

필자는 며칠 전에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곳을 다녀왔다. 모듬회를 주문하니 도톰하게 나오는 우럭, 놀래미, 광어 활어회에 흔히 말하는 스끼다시, 밑반찬이 해물위주로 맛깔스럽게 정성을 다한 개불,해삼,멍개,가리비,세꼬시,새우,







키조개관자,성게, 골뱅이 등 25가지가 나오는데 매운탕 식사까지 주문하면 밑반찬 가짓수가 총30여가지다.

음식 계산을 한 후 잘 먹고 간다는 인사라도 사장에게 할까 했는데 주방 일을 도맡아서 하는 바쁜 사장이라 방해가 될까봐 멀리서 눈인사만 했다. 그 다음날 신경 못써서 죄송하다는 카톡이 왔다. 감사한 일이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속초의 넓은 바다를 생각하고 있자니 문득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란 찬송가를 떠올라 나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린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아름다우며 그곳에 머물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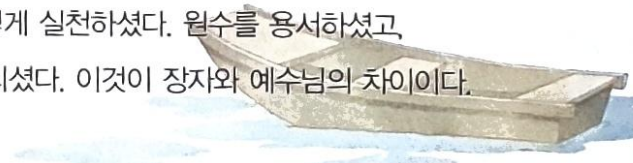
정말 아름답다.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장자와 예수그리스도의 차이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허주(빈 배)이야기가 있다. 아무 때나 욱하는 성격, 더러운 성격의 한 남자가 혼자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배 한 척이 다가와 부딪쳤다. "뭐야, 눈깔을 어디에다 두는 거야? 이런 X같은..." 하지만 그는 이내 욕을 멈추고 다시 드러누웠다. 부딪친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화낼 상대방이 없느니 화가 나지 않을 수 밖에. 이를 통해 장자는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빈 배처럼 바라본다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허주의 마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원수를 향하여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누가복음6:27-28)고 하셨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실천하셨다. 원수를 용서하셨고, 친히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다. 이것이 장자와 예수님의 차이이다. 진정 득도의 경지이다.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만평



동화되지 말고 함께 하되 구별되어야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어야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세상사람들과 다른 정체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함께 살지만 우리는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특히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하거나 그들의 습관과 정서에 동화 되어서는 안 된다.

(원용일의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중에서)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F. 타레가
FRANCISCO TARREGA

(1852-1909)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
Recuerdos de la Alhambra, for gui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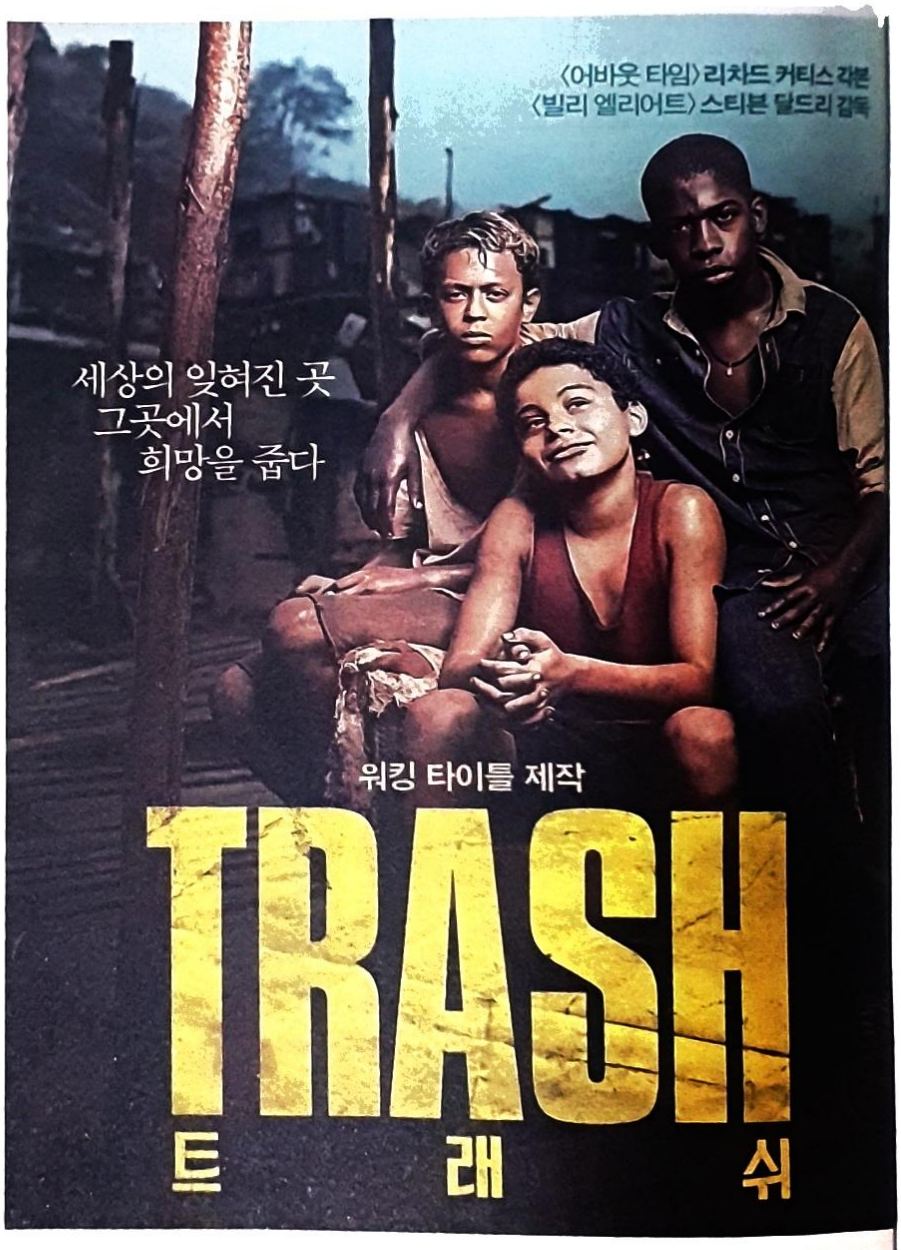
지리한 장마의 시작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타들어갔던 마음들이 이제는 태풍과 억센 빗줄기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후덥지근한 이 여름 밤에는 기타곡들이 정겹습니다.
클래식 기타의 거장이자 스페인 기타 곡들이 20세기 현대음악에 어울리는 멋진 연주임을 전 세계에 알렸던 위대한 타레가는 가히 〈기타의 사라사테〉라고 불리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1880년부터 20여 년을 클래식의 거장들의 음악을 기타 연습곡으로 완성시켰던 위대한 클래식 기타의 대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르나 로드리고의 곡을 좋아하지만 학창시절 현란한 타레가의 이 곡에 빠져서 슈베르트의 〈밤과 꿈〉과 함께 기타곡의 매력에 젖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절친이었던 알베니스의 영향으로 스페인 전통 무곡을 당시의 낭만주의적인 감수성으로 끌어올려 〈호타〉와 함께 전세계인의 관심을 받도록 한 곡이 바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입니다. 그가 그라나다를 방문했을 때 인상 깊었던 마지막 이슬람 왕조의 붉은 궁전 〈알함브라 궁〉을 추억하여 작곡하였으며, 특히 트레물로 주법의 신비로움과 애절함이 묻어나는 가히 낭만주의 시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을 방문하다 보면 왜 이슬람 문화가 이곳까지 스며들었는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약 800년 동안 스페인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즈음에 이슬람의 마지막 나스르 왕조는 이 궁전을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년의 대가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연주나 로메로 그 외에도 일본의 신예 아가씨 무라지 가오리나 우리나라의 박규희 양의 연주도 아마 신선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곡은 영화 〈킬링 필드〉의 주제 음악으로 쓰여 수많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애절함이 묻어있는 곡입니다. 한번 한 여름 밤의 모기를 쫓아낼 상쾌함까지도 더해 줄 타레가의 곡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천리에서 다니의 음악과 함께,
굵은 장마 빗줄기 속에서 보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샬롬!

김금찬 선교사






〈어바웃 타임〉 리차드 커티스 각본
〈빌리 엘리어트〉 스티븐 달드리 감독
세상의 잊혀진 곳
그곳에서
희망을 줍다
워킹 타이틀 제작
TRASH
트 래 쉬

트래쉬 TRASH

당연한 말이지만 영화를 흥행 따라 선택하여 보는 일에 익숙하다 보면 흔히 놓치기 쉬운 좋은 작품이 많으며 그중 우연히 발견되는 보물 같은 영화도 상당하다. 기독교의 진리와 사랑을 주제로 하는 영화는 더욱 그러한데 감동과 더불어 강한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는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은혜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굳이 기독교적 메시지로 영화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새롭게 일깨우는 작품도 또한 귀한 만남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예술의 양식 그러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성경이 아주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있다. 그럴 경우 성경에 대한 신성모독의 행위가 되기 십상인데 이 영화는 오히려 성경의 중요성을 은근 깊게 깔고 있는 것이다.

'트래쉬'는 쓰레기라는 뜻인데,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이 주요 무대로 등장한다. 즉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고르며 재활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중 아이들이 우연히 발견하는 지갑에서 사건이 발단된다. 이 세 소년이 발견한 지갑으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그들을 쫓는 상황에서 모험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들을 추격하는 경찰의 배후가 바로 이 영화의 악역인 것인데 바로 권력의 비리와 음모라는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인간사회의 정의와 선에 대한 반성과 확인에 이르는 좋은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지갑 속에 있는 어떤 문구가 성경의 어느 구절을 암시하면서 그 암호를 풀어나가는 추리까지 곁들이는 흥미진진한 액션으로 시종 눈을 떼지 못하는 긴장과 통쾌한 전개를 이루어나간다.

〈어바웃 타임〉, 〈러브 액츄얼리〉 등의 각본가 리차드 커티스와 〈빌리 엘리어트〉,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 등을 연출한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콜라보로 탄생하여 화제를 몰고 평단의 주목을 받은 이 영화는 정말 뜻밖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다.

특별한 점은 이 영화의 세 소년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실제 배우가 아니라 빈민촌에서 1년간의 오디션으로 뽑힌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원작 소설은 12개국 언어로 번역된 전세계 베스트셀러 소설로 영국 인디펜던트지 올해의 십대 책 및 미국도서관협회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영화 후반부 엄청난 지폐들이 쓰레기더미처럼 휘날리는 장면이 굉장히 압권이다.

어쩌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다시 돌아보고 인간 본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영화일지 모르는데 쓰레기 같은 무가치함 속에서 소중한 삶의 진리와 따뜻한 인정의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는 시각도 가르쳐주지 않나 싶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장마의 습한 날씨 속에 이 영화를 보면서 청량하고 뽀송뽀송한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도 더 없는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

김춘배 기자 / beller@hanmail.net

알려드려요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춘천은혜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2492-4316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9-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1-5652 (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제29회 청소년 희망날개 장학금 마련과 춘천성시화를 위한 춘천연합찬양축제**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중, 고등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교회 성가대 및 찬양대가 참여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31일(토) 오후 6시~09시 · 장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 대상 : 춘천지역주민 누구나) · 접수 : 2015년 8월 21일(금) 까지

☎254-7244 (내선3번 -심효선 사회복지사)

①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② **예수전도단 "자녀양육세미나" 개최**

· 일시 : 8월 5일(수) 오후7시 / 8월 6일(목) 오전10시, 오후7시 / 8월 7일(금) 오전10시

·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동면 만천리)

· 주제 :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

· 강사 : 홍장빈목사(좋은가정네트워크), 박현숙사모("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저자, 뷰티풀 워십강사)

· 대상 : 교회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교사, 예배부부, 부모

☎ 033-252-1128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10-9219-7738 (김주현)

③ **일본인 목회자와 선교사로 구성된 바나바선교회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 일시 : 2015년 8월31일(월)~9월4일(금)

· 참석자 : 일본인 목회자 25명, 이청길목사(동경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외
김종기목사(사무총장), 정순엽목사(부회장)

· 주제 :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

· 주최 / 주관 : 일본바나바선교회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 033-252-1128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10-9219-7738 (김주현)

※ 정정 안내

200호 인사말 015page, 박무영장로 춘천제일감리교회 장로로 정정합니다.

7월 이야기

기독교대한성결교단 총회장 유동선목사취임



7월 5일(주일)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는 교회 창립 81주년 감사주일 예배가 있었고, 유동선담임목사의 기독교 대한성결교단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오후4시30분에 있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제 109년차 총회에서 신임총회장에 선출된 유동선목사께서는 화합하는 성결 교단이 될 것과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청소년지도자들을 키우는데 전력하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전했다.

제19회 강원도 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



2015 제19회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전이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7월 9일(목) 오프닝 예배를 시작으로 15일(수)까지 있었다. 오프닝 예배는 노에녹목사(한울섬김교회)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는 기독미술인들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하는 말씀을 전했고,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회장 김춘배화백도 기독미술인들의 작품을 통해 치유와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번 정기전은 서양화 동양화 만평 염색등 25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춘천성시 매거진 200호 감사예배



춘천성시 매거진 200호 감사예배가 7월15일(수) 정오에 바이킹부페에서 성시임원과 성시매거진 편집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1997년 9월 창간이후 17년간을 변화를 계속해오며 200호가 되었는데, 이 날 10년이상 헌신하신 편집위원들에게 김창환이사장(온누리교회)께서 감사선물을 증정했고 오찬을 함께 하며 성시매거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원로목사님 소천



순복음춘천교회 원로목사이셨던 김주환목사께서 7월16일(목) 새벽4시16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7월18일(토) 오전9시 순복음춘천교회 본당에서 유가족을 비롯해 순복음춘천교회 교인들, 지역교계인사들과 기관장들이 참석해 가진 천국환송예배에서 이수형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되신 우리 목사님"이란 제목으로 "43년 춘천교회가 목사님의 향기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동역자들 선후배목사님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향기를 맡으면서 목사님 가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가자"고 말씀을 선포하였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로 순복음춘천교회를 함께 세워갔다고 고 김주환목사께서 늘 자랑하시던 조남진원로장로께서 마지막 조사를 통해 고 김주환목사님과 함께한 교회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한 십년만 더 살아 계신다면 10년 후 발전한 교회 모습도 보시고 모범적인 원로목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을텐데 하늘나라에서 필요해서 빨리 불러가셨으니 어떻게 합니까"하시며 고인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 땅의 소명을 다하신 고 김주환목사의 유해는 부활동산(춘천시 신동면 정족리)에 안치되었다.

강원CBS 나이영본부장인 취임감사예배



강원CBS 제15대 본부장 취임 감사예배가 7월 10일 오전10시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목사) 덕수홀에서 교계지도자와 기관, 단체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나이영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CBS는 강원도 모든 교회들과 함께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며 교계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강원CBS가 지역사회 발전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통일시대를 여는 역할도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CBS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강원도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감사예배에서 이원호 강원CBS춘천운영이사장(소양성결교회 목사)께서 '아름다운 발'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며 "나이영 신임 본부장 취임을 계기로 강원CBS가 복된 소식을 즐겁게 잘 전달하고 강원CBS가 더 크게 확장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교계 지도자들의 축하와 격려도 이어졌다. 나이영본부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고려대 사학과, 감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94년 CBS에 경력기자로 입사해 종교부장과 선교협력국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달 22일 강원CBS 본부장에 부임했다.

제1회 부활복음 전국목회자세미나



제1회 부활복음 전국목회자세미나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라는 주제로 한마음교회(김성로목사)에서 7월 16일(목) 오전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춘천과 타지역 목회자 650여분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강사이신 김성로목사는 "교회를 깨우는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 초대교회 재생산의 역사는 부활!이다. 사도행전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초대교회같은 교회공동체가 세워진다. 부활신앙을 깨닫고 교회성장을 이루었으며, 많은 간증자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부활신앙을 강조하셨다. 이날은 성도들의 간증영상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조찬이사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조찬이사회가 7월3일(금) 오전7시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목사)에서 있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2015 블레싱춘천의 평가회가 있었는데, 세 차례의 강의들이 시대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았고, 특별히 군선교 특강을 통해서 성도들이 군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3,000명의 진중세례식을 후원하여 진행한다고 이수형 이사께서 밝혔다. 통일도시 춘천이라는 강의에서 왜곡된 역사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을 내었다. 하반기에는 9월에 블레싱춘천을 한 번 더 갖는데 합의했고 성시발전기금을 마련하자는 데에 동의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IMTI 수료 및 단기 선교사 임명예식



지난 7월 24일 JDM 국제선교훈련원 (IMTI, 원장 김금찬 선교사)에서는 제27기 IMTI수료식과 단기선교사 임명예식이 있었다. 3주 동안 선교훈련을 마친 18명의 훈련생들 중 김다영, 류재은 지체가 각각 프랑스 리옹과 필리핀 앙겔레스 단기선교사로 임명되었다. IMTI 훈련은 3월-5월, 9-11월 두 차례 3개월간의 상설훈련과 1월과 7월 두 차례 3주간의 계절학기가 있다. 다음 상설훈련 개강은 9월 14일이며, 대상은 선교관심자, 장, 단기 선교사 지망생이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3차 춘천모임



7월 13일(월) 저녁 7시15분에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제43차 춘천모임이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사회에는 사랑의 침례교회 홍요셉목사, 찬양에는 하늘소리찬양단의 찬양, 김부희장로(광장감리교회)의 대표기도, 강의에는 서훈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수복목사(거성침례교회)의 헌금기도, 장미경복음성가가수의 특송과 이병철목사(쥬빌리 춘천모임대표)의 기도인도로 기도회가 있었고, 김창환목사(온누리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의 축도로 구국기도회를 마쳤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논산) 훈련병 3,000명 진중세례식



7월 25일 지난 토요일에는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는 진중세례식이 있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주최하고 순복음춘천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 3,000여명의 훈련생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순복음춘천교회가 후원을 했는데, 이수형담임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2015 블레싱춘천 강의 중에 강원대 차성도교수님의 군선교 강의가 있었다. 블레싱춘천이후에 이 행사에 대한 논의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군선교 강의에 도전을 받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금하게 되어 이 행사에 후원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셨다. 순복음춘천교회 홈페이지에서 3,000명 진중세례식 영상을 볼 수 있다.

통일광장기도회



7월27일(월) 저녁8시 석사교하천무대에서 통일광장기도회(춘천대표 김수복목사)가 있었다. 예수전도단의 찬양인도와 새터민인 방한나씨가 강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소원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보자!!
홍천 한서기념관



한서 남궁 억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무궁화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기독교 성지 홍천 한서 기념관에 친구들과 함께,
손자손녀들과 함께 자주 찾아 오시면,
우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되며,
정신줄을 한 번씩 당겨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서교회 홍천 033)434-1069 / 한서기념관 홍천 033)430-4488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유형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평화의 도시 춘천에서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광복 70년,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

일본 헌법 개정 저지 토론회

일시 2015. 8. 22(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한림대 일송아트홀(오전), 국제회의실(오후)

참가대상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

"전쟁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평화헌법에 노벨평화상을!

일본 헌법 9조는 동북아 평화유지의 핵심입니다. 개정 저지 서명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 기조연설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전 통일원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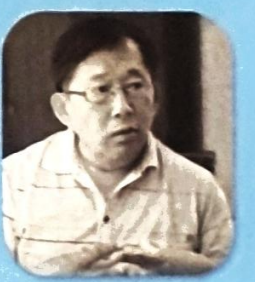
• 주제발표



권철현
전 일본 대사
전 국회의원



고모리 요이치
"일본헌법 9조회" 사무국장
동경대 교수



진징이
북경대 교수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

주최 :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주관 : 동아시아 평화연구소(소장 윤재선 교수 010.7979.7769) 후원 : 강원도청, 춘천시청, CBS, 강원일보, 아사히신문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경아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진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춘희 김현덕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완영 박제자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준선 송향순 신미연 신옥자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상교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윤흥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옥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주희 이진주 이철호 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소희
장은희 장창순 전옥희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경희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호 조소현 조영순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예은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하명수 한건영 한명수 한정연 한희선 함종현 허 봉 허서구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교회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명성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에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석사교회
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예수제자운동 행복재가요양기관 영광한의원 춘천와이신협 아가갤러리
성시무용단 춘천YWCA 월드비전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ROK ARMY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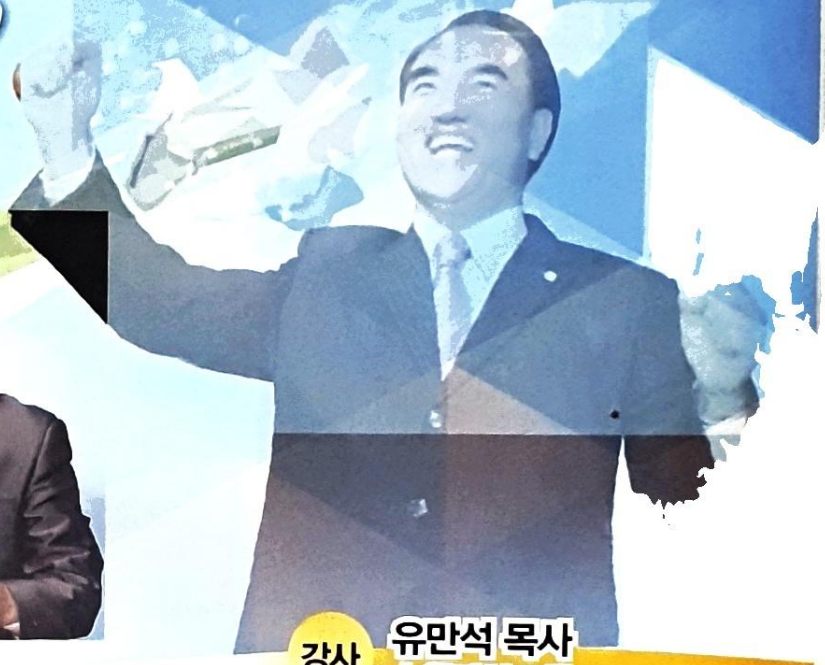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PyeongChang 2018



출연 소향 가수 이평찬 목사



강사 유만석 목사 수원명성교회

경품



(참석 교회별 경품 추첨)

대회장	총괄위원장	준비위원장	진행위원장
			
신관우 목사 명륜감리교회	함재흥 목사 원주장로교회	지용찬 목사 춘천은혜교회	오의석 목사 순복음조은교회

일시 : 2015년 8월 23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춘 천 호 반 체 육 관

주최 :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후원 : 강원도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춘천시기독교연합회 강원일보 18개시·군 기독교연합회 강원도민일보 국민일보 기독연합신문 영동CBS 춘천CBS 원주CBS CTS기독교TV영서방송 영동극동방송